08

마을의 미래를 그려가는 주민공동체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로 187
단 체 명 | 하추리산촌마을(하추리영농조합법인)
주요내용 | 주민들이 직접 마을기업인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잡곡 브랜드 '도리깨잡곡', 마을카페 '카페 하추리', 여행프로그램 '혼자 하는 산촌여행' 등 특화된 농촌관광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마을 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키 워 드 | 주민공동체, 마을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추진주체 | 주민

강원도 인제군 31번 국도를 따라 깊은 산골짜기를 굽이굽이 달리다 보면, 설악산 한계령 자락에 자리한 하추리 산촌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을을 둘러싼 드넓은 산과 그 가운데를 고요히 가로지르는 맑은 계곡물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청정한 자연환경에 감탄을 자아낸다. '가래나무(楸)가 많은 설악산 아래(下) 동네'라는 뜻의 이름처럼, 하추리는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전형적인 산촌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경관 이면에는 전쟁의 깊은 상처와 오랜 가난의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하추리는 38선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6·25전쟁 당시 남과 북의 경계에서 극심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였다. 지금도 마을 뒷산에서 전쟁 당시의 유해가 발굴될 정도로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있다. 전쟁 중에 원주민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갔고, 전쟁 이후에 이주해온 실향민들이 척박한 땅에 화전을 일구며, 들깨, 조, 수수 등의 잡곡 농사로 힘겨운 세월을 버텨왔다. 산간 지역 중에서도 골짜기가 깊고 험

하추리마을 전경





준해 농사짓기조차 어려웠던 하추리에서 가난은 숙명처럼 여겨졌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지나며 전국적으로 펜션 붐이 일었다. 하추리 인근 내린천 래프팅이 유명세를 타면서 펜션 사업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이주해오며 하추리에도 잠시 활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펜션 붐은 곧 사그라들었고, 하추리는 또다시 깊은 침체와 가난을 마주했다. 마을에는 뚜렷한 소득원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아 변화가 절실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월등히 앞서는 사람 없이 모두가 비슷한 형편 속에 살다 보니 공동체의 구심점을 잡기도 어렵고, 큰 사업을 벌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했던 하추리가 이제는 연간 약 1만 명이 방문하는 강원도 인제군의 대표적인 농촌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추리는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마을을 살리기 위해 모인 주민들

하추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일명 강원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불리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었다. 당시 하추리 주민들은 펜션 붐 이후에 뚜렷한 대안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상황이었던 터라 이 사업을 마을을 살릴 중요한 기회로 여겼다.

하추리 주민들은 절박함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마을들과 비교했을 때, 하추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지역 유지나 박사, 교수처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도 없었고, 대부분이 평범한 주민들이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 교육이라도 더 많이 받자"는 생각으로, 다른 마을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체류형 농촌체험관광마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하추리 주민들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함께

새농어촌건설운동



땀 흘리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유대가 형성되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싹터갔다.

1년간의 노력 끝에, 하추리는 2009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시상금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동체로서 성공을 맛본 첫 경험이었고, 지금의 하추리를 만드는 값진 자산이 되었다. 주민들은 시상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누지 않았다. 대신, 마을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액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주민들은 옛 하추분교 인근의 땅을 마을 공동부지로 매입했고, 이 부지는 이후 하추리의 모든 마을 사업이 이뤄지는 기반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선택, 마을기업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똘똘 뭉친 주민들은 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가 바로 2008년 설립된 마을기업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이다. 본래 법인은 시상금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하추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였다.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공동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운영방식이다. 법인은 마을회에서 파생되어 조직되었으며, 마을 이장이 법인 대표를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이는 법인의 운영이 마을 전체의 방향성과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또한 법인의 모든 의결사항은 반드시 마을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집행될 수 있도록 마을 규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인이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걸어두었다. 조합원의 자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 특성상 모든 주민이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진 않지만[8],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하추리 주민이라면 누구나 법인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은 마을의 경제적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잡곡사업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카페 하추리 등 마을의 모든 소득 사업을 법인이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법인 상근인력을 포함하여 연간 약 30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월평균 1,500만 수준이다.

법인의 사업 성과는 하추리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대부분이 마을회 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도리깨축제나 어버이날 행사 지원, 노인회 야유회 찬조, 마을 공동 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 전체의 복리(福利)와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하추리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공을 발판삼아,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부지 및 마을기업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뛰어난 기획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하추리의 고유 자원을 연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잡곡의 대변신, 정겨운 도리깨소리

잡곡 농사는 화전민들의 고된 삶이 담겨있는, 하추리의 역사 그 자체다. 과거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잡곡이 2014년 농촌진흥청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 핵심 소득원으로 변신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하추리는 마을 내 최신시설의 도정공장을 갖추어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뒤이어 마을에서 생산한 잡곡 상품을 ‘도리깨잡곡’으로 브랜드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도리깨잡곡 사업의 핵심은 법인과 마을의 상생이다. 법인은 연초에 주민들과 계약재배를 하여 당해 생산할 잡곡 전량을 수매하는데, 수매 단가를 지역 농협보다 kg당 300~500원 높게 책정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고품질 잡곡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수매한 잡곡은 마을 도정공장에서 직접 가공·포장되어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선하고 질 좋은 잡곡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하추리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수, 서리태 등 마을 잡곡을 활용한 그래놀라 제품을 개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찾아오면 하추리는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도리깨

8) 현재 약 50가구가 하추리영농조합법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도정공장



축제'는 하추리 잡곡 사업의 정점이자,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수확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된 작은 마을 축제였지만, 이제는 이틀간 약 1,000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번성했다. 도리깨축제의 백미는 뻥튀기 기계가 축포를 쏘아 올리며 시작되는 타작 퍼포먼스다. 주민들이 마당극 형식으로 도리깨 타작을 시연하고, 방문객들은 직접 도리깨질부터 각종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잊혀가는 우리 농경문화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도리깨축제는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작년부터는 5천원 짜리 상품권을 입장권 개념으로 판매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상품권으로 마을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거니 도리깨잡곡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으며, 마을은 축제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인근 마을과의 협력이다. 식사 준비를 위해 옆 마을인 가리산리 부녀회와 교통 정리 및 안내를 위해 인근 자율방범대에 요청해 협업하고 있으며,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다.

도리깨축제



카페 하추리와 작은 도서관





산촌마을의 낭만을 담은 공간, 카페 하추리

농촌체험마을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단체 예약 손님이 없을 때 마을이 텅 비어 보인다는 점이다. 하추리 주민들은 언제든 방문객들이 편히 쉬어가고 마을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에게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바람이 모여 탄생한 공간이 바로 '카페 하추리'다. 카페 하추리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존 특산물 판매장을 증축하여 만들어졌다. 처음 카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깊은 산골까지 누가 커피를 마시러 오겠냐"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리더 그룹의 비전과 추진력으로 문을 연 카페 하추리는 현재 마을 사업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카페 하추리에는 자연이 주는 낭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하추리 숲의 나무를 활용해 실내를 꾸미고, 주민들의 손끝으로 만들어진 가구와 장식품들이 실내를 장식하고 있다. 메뉴 또한 특별하다. 콩 크림 아인슈페너, 오미자에이드 등 이곳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와 간식은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카페 한편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아늑한 쉼터가 되어준다. 산골마을 카페이자 하추리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쌓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나를 찾아 떠나는 혼자하는 산촌여행

하추리는 농촌관광의 패러다임을 '체험'에서 '여행'으로,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최근 하추리가 주력하고 있는 여행프로그램은 '혼자하는 산촌여행'으로 일부 저가여행 단체 관광객들에게서 일부 저가여행 단체 관광객들에게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전환하고자 기획되었다.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싼값에 밥만 먹고 가려는 일부 단체 관광객들은 마을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밭의 고추를 서리하는 등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하추리는 마을의 가치를 존중하고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소수의 여행객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혼자하는 산촌여행



하추리산촌학교(숙소)



혼자하는 산촌여행은 말 그대로 혼자 와야만 참여할 수 있는 2박 3일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1인당 30만 원 초반대로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추리산촌학교의 1인 1실 숙소와 마을 주방팀장님이 정성껏 차려내는 6끼의 건강한 밥상, 그리고 강성애 사무국장이 직접 호스트가 되어 안내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특히 핵심 콘셉트인 '자발적 고립'에 집중함으로써 잘 짜인 일정 속에서도 충분한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참가자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자연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하추리가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에 깊이 만족하고 있으며, 여섯 번까지 재방문한 참가자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행프로그램을 통해 하추리에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여행 후 카페 하추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을 청년과 인연을 맺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인근 인제읍으로 귀촌하기도 했다. 혼자하는 산촌여행은 깊은 산골마을의 지리적 약점을 고요한 휴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추리 주민들이 전하는 삶의 질 이야기

희망이 보이지 않던 마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하추리 주민들이 얻은 성과는 경제적인 안정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행복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다.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은 상근직원 5명을 포함해 연간 30여 명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생산한 잡곡을 농협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수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밖에도 주말이면 마을 카페와 체험장을 찾는 방문객들로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도는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또한, 외부로부터 받는 인정은 주민들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때, 주민들은 이틀간 마을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했다.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감격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윤종욱 이장이 2024년 인제군민대상(지역개발 부문)을 수상했을 때도 하추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하추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체감할 수 있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과거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산골마을 주민에서 이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마을 주민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다.

> "어디 나가면 '나 하추리 살아' 이러면 다들 되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추리 마을 주민 52명이 자신들의 집을 직접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눈 책인 「산골마을 하추리」에서도 이러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잘 나타난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하추리에서의 삶을 '좋다',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이웃, 그리고 함께 가꾸어온 마을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이 주민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하추리

하추리에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마을의 성장은 주민들의 헌신과 애향심에 크게 기대어 왔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긴 어렵다. 마을의 고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유입하고 이들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급여 체계를 갖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추리영농조합법인이 지금은 마을공동체로, 작은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 내 인적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컨설팅은 마을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회계, 세무, 마케팅, 사업 기획 등 여러 분야에서 마을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밀착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의 역할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 강 사무국장은 마을공동체는 주민 화합과 복리 증진 등 본연에 역할이 집중하고, 수익 사업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업'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에만 기대어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방식은 다음 세대의 가치관 속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의 개편은 하추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2006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계기로 마을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이다. 그동안 여러 힘든 일을 겪기도 했지만, 마을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함께 똘똘 뭉쳤고, 그 결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을로 변화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하추리는 마을의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면서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이웃들과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다.

Editor | 이 진